

광주시, 공무원 소신껏 일할 풍토 만든다

광주시는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된 행정에 대해 징계나 처벌을 면해주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풍토 조성에 나선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017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시정 전 분야에 대한 정기감사와 특정감사 등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올해는 남구·북구 등 16개 기관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하고, 기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에 위탁한 사무에 대한 컨설팅 감사, 시정 중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각종 위

업무중 발생 잘못된 행정 처벌 면제 '적극 면책제도' 도입

市 감사위, 숨은 세원 발굴 재정감사·예방적 감사 강화

원회 운영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특정감사, 공원 내 놀이·편의시설 등 시민생활 불편사항 및 안전시설 점검과 시공 중인 대형공사장에 대한 컨설팅 감사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된 관행적 감사에서 탈피해 예방적 감사를 강화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등 재정 수입을 증대하는 재정 감사도 실시할 계획

이다.

또한,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잘못이 발견되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고, 반면에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성문용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청렴한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직 내부의 안정과 시민 행복을 지원하는 조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출범 첫해인 지난해에는 농산물 도매시장, U대회 의혹사업 등 성역 없는 감사를 통해 시민에게 시정을 알리는 민낯 행정을 실천하고, 전남도로부터 미이전 받은 공유재산 310필지 521억원을 발굴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하남동 주민들 '광주시립도서관 유치 추진위' 발대식

광주 광산구 하남동 주민들이 '광주시립도서관 유치 추진위원회'를 꾸려 최근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오후 하남동주민센터에서 가진 발대식에는 권은희 국회의원, 김옥자 광주시의원, 이준형·조상현·정진아 광산구의원과 주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주민들은 김영선 하남2지구 공동체협의회장을 광주시립도서관 유치 추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영선 위원장은 "광산구가 5개구 가운데 1인당 도서보유수가 가장 낮은 0.9권으로 10대 청소년의 도서 보유수도 다른 지역의 절반 수준인 6.4권에 불과하다"며 "광산구에서 10대 청소년의 30%가 거주하는 하남2지구에서 시립도서관을 세워 지역간 문화인프라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렬기자 srchoi@



광주시 광산구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으로부터 '기업환경 우수지역' 인증서를 받고 현판식을 가졌다. <광주시 광산구 제공>

광산구 '기업환경 우수' 인증

광주 광산구(구청장·민형배)가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기업환경 우수지역' 인증서와 함께 현판을 받았다.

이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광산구청을 방문해 증서를 전달하고 '2016년 전국규제지도기업체감도 1위' 지자체를 알리는 현판을 구청 현관에 부착했다. '전국규제지도기업체감도'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시의 규제 정책과 전국 8600여개 기업의 지자체 행정 만족도를 조사해 분석한 결과이다.

이날 박 회장은 "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기업 활동 뒷받침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민형배 구청장은 "기업인들의 신뢰로 형성한 좋은 사회적 자본을 광산구가 얻었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실무 영역인 지역 경제성장을 1위에 오르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 탄소은행제 아파트단지로 확대

올 하반기부터 ... 최대 1000만원 인센티브

광주시가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하던 탄소은행제를 올 하반기부터는 아파트단지로 확대한다.

광주시는 탄소은행 가입 대상을 아파트 단지로 확대해 관내 150세대 이상 아파트 712곳에 대해 15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 등 2개 부분으로 구분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아파트 단지의 인센티브 지급방식은 예

내지 절감량, 탄소은행 참여도, LED등 교체 등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평가해 최대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은행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 비상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주행거리 감축 및 친환경 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일반 가정용

대상으로 탄소은행제를 시행해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3개 부문 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탄소은행제 시행 10여년 동안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전체 58만 세대 중 35만 세대가 가입해 가입율 60%를 달성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 중 1위로 가입률 50% 이상은 광주시가 유일하다.

2016년 상반기에는 탄소은행제에 참여

한 4만8000세대가 3억3000만원의 탄소포인트를 받았고 전체 5만5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이는 어린소나무 2091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

또 광주시는 2014년부터 학교, 상업시설, 산업시설 등 다량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해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에 출산한 27개 우수시설에 대해 시상금과 유공자 표창을 통해 동기를 부여해왔다.

우수 자치구에 대해서는 9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탄소은행 참여 우수 공동주택에 지하주차장, 가로등을 LED로 교체토록 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숲·수·다 청소년인권평화캠프 지난 16일 장성 한마음학교에서 열린 '숲·수·다' 청소년인권평화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문화목회연구소 제공>

3년안에 승부 납니다! 모든업종 개발 가능!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씩 분양중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
- 주인직매 H.010-3605-5000